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50. 펴 놓인 작은 책의 정체

2013. 12. 15.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섯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나팔에 대한 계시가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가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있는 계시록 10장 내용을 살필 차례가 되었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0:5~11]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라 8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갓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갓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일곱 우레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까지 살폈습니다. 그것이 4절이었지요. 오늘은 5절부터 공부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답: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서 유익한 것들은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 없지요.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반드시 알려주신다고 선언했지요.

[암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되지 않은 것을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10:5절에서 말씀을 시작하셔야지요?

답: 그렇지요. 5,6절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 하리니”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섰다는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 했지요. 온 세상을 뜻하는 표현이라고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창조주를 향하여 맹세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제3의 천사라고 했더군요. 그러나 계시록 1장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성경 다른 곳에 있는 표현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늘 둘러 있는 상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은 다니엘서인데, 마태24:15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대조하면 이때에 마태24:15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연구되고 깨달아질 때가 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해보이거든요.

3. 왜 다니엘서가 깨달아야 할 역사적 시기가 있어야 합니까? 어느 때나 연구하여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답: 참 좋은 질문입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나는 말씀인데, 다니엘서에 대하여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그 책을 봉함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나는 말씀이지요. 단 12:4에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는 다니엘서가 열리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를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 서는 때가 되면 다니엘서가 열릴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계시록 10장에서 예수께서는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계십니다. 분명히 봉해졌던 책 다니엘서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예언된 작은 뿔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 하신 예언의 때와도 맞지 않는 해석이 됩니다. 에피파네스는 예수님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 있던 시리아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작은 뿔이 나타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원전 시대에 있었던 시리아의 한 왕에게 적용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설명이지요.

4. 예, 그러네요.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향하여 맹세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답: 여기 표현이 막연하지 않고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이고, 둘째는 창조하신 이입니다. 이것은 창조와 생명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요. 이 시기에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이 사상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이르기까지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하여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

각됩니다.

5. 하나님의 두 가지 칭호에 대하여 무시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 여기 제시된 성경의 하나님의 두 가지 칭호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첫째 칭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생명자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창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지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라고 합니다. 막연히 창조주라고 하지 않고 창조의 범위와 창조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전파한다고 해도 진짜로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두 기초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두 기초를 무너뜨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이 버가모 교회시대를 거쳐서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있었고, 셋째 인과 넷째인 시대, 그리고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 시대에 있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별이 강과 샘물에 떨어져서 그것을 썩물이 되게 했지요. 그럴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10장에서 예수님의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연구하는 일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사실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된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의 종교와 성경의 신앙은 이 두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두 기초를 무너뜨리고 세운 기독교는 완전히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6. 목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칭호와 성경의 종교의 두 기초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각인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예, 성경의 종교는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교이고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의 종교와 성경의 신앙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삼위가 같은 한 이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신 성경의 하나님은 생명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 여호와라는 또한 창조주이심을 드러냅니다. 우주 만상 중에 생물이거나 무생물이거나 존재하게 된 것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께서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은 누군가가 창조해 주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분이십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사실을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두 기초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7.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신했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8. 성경에 그런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 당연히 있지요. 이제 몇 성경구절을 찾아 확인해봅시다.

[창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줄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다는 것은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의 이름입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름이 합당한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은 신은 이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7장에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이미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분이 생명자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게 되지요. 그분만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롬4: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고 또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진정으로 믿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9. 아, 목사님, 로마서에 분명히 설명했네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즉 생명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곧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군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만 생각하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게 되겠네요?

답: 예, 목사님,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4:16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 3:6,7

에도 있고요. 한 번 읽어봅시다. 먼저 갈3:6,7을 읽지요.

[갈3:6,7]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고 했지요. 다음에 롬 4:16,17을 읽읍시다.

[롬4:16,17]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7절은 아까 읽고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만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밝혀놓은 것이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 즉 창조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경종교와 신앙의 두 기초가 햇불처럼 타는 큰 별로 나타난 루시퍼의 속임수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제7일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은 침례로 나타내게 하셨는데, 제7일 안식일은 일요일로 바꿔놓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을 영혼불멸설로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 가톨릭까지 포함하여 거의 모든 기독교가 영혼불멸설을 믿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생명의 부활로 보지 못하고 육체의 부활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을 잃은 것이고 부활은 이 생명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시 얻기 전에는 그 사람은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때를 의식 없이 기다리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곧 세세토록 살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한 대로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10. 그렇군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장면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까? 이때에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것은 여섯째 나팔에 계시되는 사건들이 아직 다 지나가기 전에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기간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지요. 여섯째 나팔은 11장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9장이 보여준 역사적 사건들이 끝나고 11장의 사건이 일어나려고 할 그런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예언된 두려운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니

엘서를 연구하여 깨달을 것이며, 그 결과로 성경종교와 신앙의 두 기초가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연구하여 반드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와 세세토록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부활을 주장하시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섬기는 올바른 성경의 종교와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크게 증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11. 예,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 장면이군요. 그런데 계10장의 내용대로 다니엘서를 연구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답: 봉해진 책 다니엘서는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이 지난 후에 언젠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3년 반인 이때의 시작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반포한 로마감독이 모든 기독교의 수장이라는 칙령을 실시할 수 있게 된 538년입니다. 그 끝이 1798년입니다. 이 연대가 성경 예언 상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해가 됩니다.

12. 어떻게 1798년이 마지막 때, 곧 말세의 시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답: 다니엘 12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단12: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세 때 반이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면 모든 일이 끝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 때 반 동안 성도들이 핍박받는 시기가 끝나면 마지막 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마태24:21에 말한 큰 환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이 날 때에 세상이 말세에 접어 든다는 것을 가리키는 예언이거든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고 한 이 다니엘서가 이 기간이 끝날 무렵 열려서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계11장에 여섯째 나팔의 남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과 1798년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관련에 의하여 계10장의 퍼 놓인 책, 다니엘서가 이 기간이 이를 때에 열릴 것이고 그것을 열고 연구하여 깨달으면 다시 예언할 일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계10:11의 말씀인데 11절 설명할 때 자세히 살펴야 하겠지요. 다시 예언할 내용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라는 사실을 깨닫고 증거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모습을 예수께서 맹세하시는 엄숙한 장면으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13. 그런데 이 말씀에는 지체치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무엇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인지요?

답: 그것은 다음 구절 7절과 연관되어서 이해되어야 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쳐야 하겠습니까.)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어려운 내용을 이만큼이라고 이해

하게 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대로 올바르게 계시록을 깨닫게 하셔서 이 말세에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성경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올바르게 믿고 생활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